



제4회 국가생명윤리포럼

신뢰할 수 있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IRB 역할과 개선방향

일시 : 2019. 12. 19.(목) 13:30 ~ 17:00

장소 : 서울 강남 웨라톤 호텔 로얄볼룸홀

I 초청의 글

최근 연구가 점점 첨단화되고 불확실성을 가진 채 다양화되면서 연구자 개인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는 연구자를 믿기보다는 IRB와 같은 제도를 통해 연구자는 물론 수행 계획, 과정과 성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연구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행위나 부적절 행위로 연구 성과 자체 또는 질이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더불어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고 변질되는 경우까지 많아지면서 연구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이미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연구는 계속되고 발전해야 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느냐보다 얼마나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었느냐가 연구자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윤리적 문제로 신뢰가 떨어진 연구로 인한 피해는 그 나라의 연구공동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연구윤리 확립은 더 이상 선택일 수 없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구윤리를 비롯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마련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대되는 역할은 매우 크며, 스스로 연구 환경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기도 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의 신뢰성 회복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IRB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4회 국가생명윤리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신뢰할 수 있는 연구와 연구 환경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윤 성**

I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30~13:35('5)	개회사 인사말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윤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
13:35~14:35('60) (각 20분)	주제 발표	
	심의 시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과제 정종우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IRB의 역할 조양석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14:35~14:45('1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질 관리 효율성과 제도 개선 방향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휴식	
14:45~15:45('60)	토론 좌장 : 전방욱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의학연구	김덕수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박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사회과학연구	김민식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강정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연구관리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실장)
	결과관리	홍성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부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15:45~16:15('30)	전체 토론	
16:20	폐회	



제4회 국가생명윤리포럼

신뢰할 수 있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IRB 역할과 개선방향

일시 : 2019. 12. 19.(목) 13:30 ~ 17:00

장소 : 서울 강남 웨라톤 호텔 로얄볼룸홀

| 초청의 글

최근 연구가 점점 첨단화되고 불확실성을 가진 채 다양화되면서 연구자 개인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는 연구자를 믿기보다는 IRB와 같은 제도를 통해 연구자는 물론 수행 계획, 과정과 성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연구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행위나 부적절 행위로 연구 성과 자체 또는 질이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더불어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고 변질되는 경우까지 많아지면서 연구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이미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연구는 계속되고 발전해야 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느냐보다 얼마나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었느냐가 연구자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윤리적 문제로 신뢰가 떨어진 연구로 인한 피해는 그 나라의 연구공동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연구윤리 확립은 더 이상 선택일 수 없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구윤리를 비롯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마련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대되는 역할은 매우 크며, 스스로 연구 환경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기도 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의 신뢰성 회복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IRB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4회 국가생명윤리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신뢰할 수 있는 연구와 연구 환경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윤 성**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30~13:35('5)	개회사 인사말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윤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
13:35~14:35('60) (각 20분)	주제 발표	
	심의 시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과제 정종우(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IRB의 역할 조양석(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질 관리 효율성과 제도 개선 방향 김현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5~14:45('10)	휴식	
14:45~15:45('60)	토론 좌장 : 전방욱(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의학연구	김덕수(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박해숙(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사회과학연구	김민식(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강정원(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연구관리	김해도(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실장)
	결과관리	홍성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부	하태길(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15:45~16:15('30)	전체 토론	
16:20	폐회	